

# 임실군 살림 늘리기 사활

### 심 민 군수, 기재부·환경부·행안부 등 줄줄이 방문 국비확보 비지담

심 민 임실군수가 지역내 굶직한 속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심 군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굶직한 현안사업과 지역발전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이를 위해 심 민 군수는 18일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2019년 국가예산 2차 심의 단계에 접어든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사항 해결과 국가예산 중점사업의 예산 파기에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였다.

이날 심 군수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류형선 지역예산과장 등 관계관들을 만나 "녹물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군민들의 가정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어

필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46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내년도 신규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심 군수는 또한 임실군의 반세기 속원사업인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확보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지난 해 교통환경개선 용역비(2억원)를 확보한 데 이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부처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 군수는 최근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업무가 이관된 환경부를 방문해 "섬진강댐 주변지역 교통환경개선 용역의 늦어도 10월말까지 완료되는 만큼 섬진강댐의 특수성을 감안해 내년도 국비 27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또한, 지난 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조정 합의 후 주민들의 사업이

행 촉구가 계속되고 있는 '유안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뱀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신속한 변경도 함께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항구적인 도시침수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임실을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여건 개선에 목적이 있는 '임실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부처간 협업 및 예산절감 선도모델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심 민 군수는 "지난 민선 6기 기간 동안 많은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면서, "민선 7기에도 한 톨이라도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해 잘 사는 임실, 부자 되는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연일 폭염에 전국이 불가마... 탈출구 어디?

### 순창 강천산, 더위 식히려는 피서객 주말동안 2만3000여명 방문

순창 강천산이 찜통더위 탈출 피서지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군은 지난 14~15일 주말과 휴일 강천산에 2만3,000여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본격적 여름 성수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시원한 계곡물과 숲속 산책이 가능한 강천산에 관광객들이 찾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이주 주말과 휴일에는 3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여름성수기 근무 태세에 들어간다. 여름성수기 근무는 오는 21일부터 한달동안 운영된다.

이처럼 강천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계곡의 물이 차고 깨끗하기 때문이다. 특히 깊지 않은 계곡이 완만하게 이어져 있어 가족 물놀이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나무 그늘이 짙어 시원하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산책로가 왕복 5km 가량 완만하게 이어져 여름 숲속 힐링을 느끼기에도 제격이다. 강천산은 순창군의 대표관광지로 예부터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산세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높이 50m 높이에서 폭포수가 병풍을 치듯 떨어



순창군은 지난 14~15일 주말과 휴일 강천산에 2만3,000여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본격적 여름 성수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는 병풍폭포는 물방울이 천연 선풍기 역할을 하면서 최고의 더위탈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 높이 120m에서 세 줄기 폭포수가 떨어지는 구장군폭포의 웅장한 아름다움은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날려 버릴 정도의 장관이다. 이외에도 강천산 현수교와 소담한 아름다움이 깃든 강천사도 순창 강천산의 매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

면서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더위를 피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청결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천산은 4계절이 아름다운 관광지로 지난해 130만명 정도가 방문할 만큼 인기를 끌면서 순창의 관광 객 500만명 유치 목표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실군을 찾아 집수리 봉사, 벽화봉사, 세탁봉사 활동을 펼쳤다.

# 임실서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 '훈훈'

### 희망브리지, 26가구 선정 도배·장판교체 등 구슬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실군을 찾아 집수리 봉사, 벽화봉사, 세탁봉사 활동을 펼쳤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는 재난위기가정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집수리 로드는 올해로 8회째를 맞아 임실군 등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도배, 장판 등 집수리, 이불빨래 봉사, 벽화 그리기 등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집수리 로드에는 서류전형과 엄격한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원봉사자 총 47명이 참여해 집수리봉사팀, 세탁봉사팀, 벽화봉사팀, 운영팀 등으로 나뉘어 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혹서라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간호인력 1명

으로 이루어진 의료팀이 운영팀에 합류했고, 벽화봉사팀은 모두 미술을 전공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했다. 이날 임실을 찾은 집수리 봉사팀은 1일 동안 총 26가구를 방문해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에 7가구 이상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임실군 성수면 도인길에 위치한 담벼락은 한국 치즈의 원조 임실 치즈와 친환경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블루베리 등의 그림들로 채워진다.

세탁봉사팀은 삼계면 읍지경로 당, 속호경로당, 성수면 성수경로당에서 하루 8시간 기준 1,000kg 분량의 빨래가 가능한 7톤의 세탁차량을 이용해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마을주민을 위해 이불빨래는 물론 빨래봉사를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진로직업·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7일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인 학생들에게 진로직업교육과 푸른 숲에서의 자연탐방, 숲 교육을 제공하는 '열려라, 산림청'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남원교육청과 남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된 것으로, 평소 산림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 종사하는 직업인과 만나 산림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 해소에 나선 것이다.

또한 시원한 숲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 곤충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등산 위급사항 시 로프 묶는 법 등의

다양한 숲 교육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그동안 전문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해 지난해 8,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 교육을 시행했으며 숲 어울림학교 등 현장 견학형, 강연대회형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청소년 숲 교육에 앞장서 왔다.

서부청 관계자는 "진로를 탐구하는 청소년들이 산림일자리에 대한 직업교육과 숲에서 주는 즐거움을 통해 숲이 배움터이자 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순창군이 오는 31일까지 염소사육농가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피해액 일부 보전과 FTA 이행으로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에 '염소'가 확정됨에 따라 한·호주 FTA 체결로 인한 염소사육 피해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2017년에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된다.

또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올해 기준 현재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 중,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등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예상단가는 지난해 출하비릿수 당 10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며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 9,000원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산내면 귀농귀촌인 간담회

남원시 산내면(면장 우남제)은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원천마을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원시가 지원하는 귀농귀촌지원사업의 하나인 이번 주민 유대강화사업에는 원천마을 주민 42가구와 귀농귀촌인 8가구가 함께 준비한 환영행사와 즐거운 식사 시간, 귀농 사례발표까지 이어져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이날 행사에서 원천 이장(차상진)은 "귀농·귀촌인들의 유대강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선배 농업인으로서의 노하우 전수, 농가 간 정보공유, 각종 애로사항을 상호 건의하는 만남을 자주 갖는 등 진정한 이웃사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남제 면장은 행사에서 산내면은 남원시의 귀농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직접 뛰고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